



월드컵 3題

“5·31 투표하고 독일로”

광주선관위, 4강 기원·공명 선거 캠페인

5·31 지방선거 투표 참여 유도와 한국 축구의 월드컵 4강을 기원하는 이벤트가 열린다.

광주시 선관위는 27일 오후 3시30분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K리그 광주 상무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를 전후, 5·31 투표하고 독일로 가자라는 행사를 펼친다.

선관위는 경기 시작 전 ▲전광판 공명선거 홍보 영상 상영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비행선 선화 ▲월드컵 4강 기원과 공명선거 다짐 응원전 등을 갖는다. 하프타임에는 관중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홍보관 맞추기 등 경품행사 ▲광주지역 초·중학생 꼭짓점 댄스 경연대회 예선 등이 펼쳐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참여 분위가 조성되고 함께 선거도 스포츠 정신과 같이 깨끗하고 정정당당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상무 축구단은 이날 홈 경기를 무료로 개방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월드컵 날씨 걱정마세요”

기상청, 응원 집결지 등 기상정보 제공

기상청은 26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kma.go.kr)를 통해 독일 월드컵 개최 도시와 경기장, 국내 응원 집결지 등의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월드컵 기상정보’는 경기장 인근의 기후관측소인 베를린 등 11개 도시의 기후자료와 매시간 바뀌는 12개 개최도시의 실시간 기상 관측자료다. 또 우리나라 대표팀이 예선전을 펼치는 프랑크푸르트 발트·라이프치히 젠트랄·하노버 아베데 아레나 등 12개 경기장의 날씨예보와 서울광장 등 국내 응원집결지 11곳에 대한 디지털 상세예보도 소개된다.

국내 응원 집결지 날씨는 3일간 3시간 간격으로 기온·날씨·강수량·바람·습도를 그래픽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예보로 제공된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오늘 보스니아전 광주 거리응원 없어

26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보스니아와 축구 평가전을 치르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거리응원원이 광주에서는 열리지 않는다.

지난 23일 세네갈과의 평가전 때 광주시청 앞 미관광장에서 거리응원전을 주관했던 ‘상무축구클럽연합회’ 정정규 회장은 “26일 경기에서는 거리응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27일 연합회 내 10개 클럽 회장단과 모임을 갖고 앞으로 있을 평가전 및 월드컵 본 경기와 관련한 거리응원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민약 거리응원을 하기로 결정된다면 붉은악마 광주시지부, 개인택시축구연합회, 북구축구연합회 등과 협력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휴대폰 과다사용은 불안의 신호”

청소년들의 과다한 휴대폰 사용은 불행하고 불안한 상태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용인정신병원의 하지현 신경정신과장은 2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미국 심리학회에서 평균 연령 15세인 한국 고교생 575명을 대상으로 휴대폰 사용 습관 및 태도를 조사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10대들의 휴대폰 사용 습관과 관련한 감정적 중요성을 연구한 첫 사례로 평가받는 이번 조사에서 ▲통화 ▲문자메시지 보내기 ▲착신·발신을 바꾸기 등을 하루 90차례 이상 하는 고교생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으며 이들 과다 사용자는 불행하거나 지루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과다 사용자는 이들보다 조금 낮은 70차례 수준의 학생들에 비해서도 우울함과 근심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중증 사용자들은 잠자는 시간을 빼고 거의 매 10분마다 휴대폰을 사용했는데, 대부분은 문자 메시지였으며, 끊임없이 메시지를 체크하고 곧바로 답장을 안보낸다고 짜증내는 경우가 많았다.

하박사는 “조사 결과 휴대폰 과다 사용자들은 심각한 불안상태에 있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생활에 문제가 있다거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분노로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한편 최근 조사에서 미국의 경우 8~18세 청소년 5명 중 2명은 휴대폰을 갖고 있으며 7학년부터 12학년의 경우에는 매일 평균 속 재를 하는데 쏟아붓는 시간과 비슷한 수준인 1시간씩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노스텍사스대학의 크리스티나 왓슨 교수는 “10대들에게 휴대폰은 통신 수단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접촉하기 위한 매개체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한국 고교생 사용습관 조사

10분마다 문자메시지 체크

우울·근심 수치 매우 높아

재를 하는데 쏟아붓는 시간과 비슷한 수준인 1시간씩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노스텍사스대학의 크리스티나 왓슨 교수는 “10대들에게 휴대폰은 통신 수단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접촉하기 위한 매개체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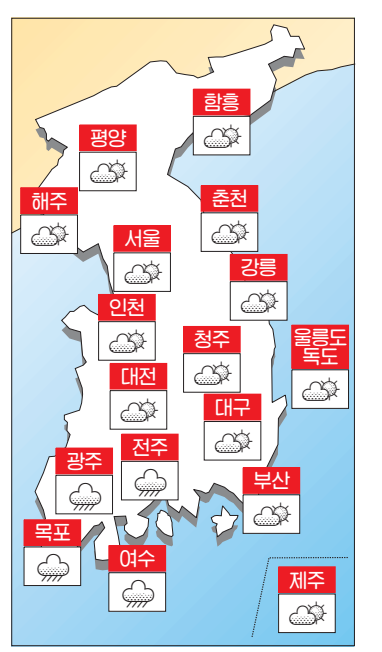
축축한 하늘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한두차례 비가 오겠다.

5월 26일

(음 4월 29일) ◇전국날씨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Seoul, Gyeonggi, and Jeonnam.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2.0~3.0m, 남해남부 앞바다=북동~남서풍 파고 2.0~4.0m, 목포 밀물 < 01:15 썰물 < 06:35, 여수 밀물 < 08:10 썰물 < 02:08

▲해돋이 05:22 ▲해질 19:37 ▲달출 04:11 ▲달질 18:4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s for the week of May 27th to June 1st.



황금박쥐

아직도 겨울잠

함평 동굴에서 발견

본격적인 여름이 접어들면서 모내기과 보리베기가 시작되는데는 '소만'(小滿·양력 5월21일)이 지났지만 황금박쥐(학명 붉은박쥐)는 아직도 동굴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신원우) 주최로 25일 열린 '멸종위기박쥐의 보전·관리를 위한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학자 등 20여명은 이날 함평군 대동면 응성리 '정창 2굴'에서 아직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황금박쥐 1마리(원안)를 발견하고 환호성을 올렸다.

'정창 2굴'(고산봉 해발 90m·길이 54m)은 한여름에도 12도를 넘지않을 정도로 서늘하며, 습도가 97%에 달해 최적의 서식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동면 일대 황금박쥐의 수는 지난 2000년 61마리에서 2005년 154마리로 증가했다.

사진 왼쪽은 '정창 2굴'에서 황금박쥐가 서식한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한 대동면 주민 최수산씨. 오른쪽은 일본 나라교육대 마에다 기시오 교수.

/함평=위직량기자 jrwi@

오늘 광주·전남 10~30mm 비

26일 광주·전남지역에는 10~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26일은 흐리고 한 두차례 비가 온 후 오후 늦게 개개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또

“바다의 물결이 전 해상에서 2~4m로 높게 일고 돌풍과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고 말했다.

비가 내리면서 광주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낮은 19~25도를 오르내릴 전망이다. 이승배기자 lsb54@

전국 게이머들 빛고을 총집합

내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2006 광주게임대회' 개최

전국 아마추어 게이머들이 광주로 모인다.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은 27일 오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06 광주게임대회'(The Playing Gwangju Game 2006)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898개팀 1천 636명 중 예선을 거쳐 올라온 88개팀 게이머 176명이 자웅을 겨룬다.

게임대회의 종목은 ▲스타크래프트 ▲스페이스포스 ▲프리스타일 ▲테일즈 러너 등 4종목. 상금은 최우수상 300만원부터 장려상 50만원.

특히 스타크래프트의 경우 산악자원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e-스포츠협회가 공인, 준프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32명의 본선 참가 자격을 얻기 위해 모두 780여명이 몰렸다. 또 KTF 프로그래밍의 시범경기와 프로게이머 박정석 팬 사인회, B-Boy 초청공연을 비롯,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 복장을 한 모델이 경기장 일대에서 관람객들을 맞는 '게임 코스프레 행사'도 벌인다. /김지을기자 dok2000@

Advertisement for '아카데미명생교육원' (Academy Myeongseong Education Center) featuring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휴대폰문자발송 자동프로그램' (Mobile Phone Text Message Automatic Program) with a cartoon character and promotional text.